

5년간 녹색산업 100조 수출 추진... 초미세먼지 30% 감축

환경부, 2023 정책 추진과제 보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위한 연도·부문별 이행계획 3월 발표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있게 고려
무공해차 수송 실행방안 내놓기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2023년 환경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녹색산업 수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수소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

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 기본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

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함해 착공한다.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화,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이 목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중

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맞춤 수출지원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 7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수소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 $\mu\text{g}/\text{m}^3$)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신적 재무장, 백년기업 기반 다져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신년사
“불의사고 원천차단 시스템 갖춰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일 “공사 창립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새해를 맞아 다시금 정신적 재무장을 통해 백년 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2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민첩하고 영특한 토끼처럼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장애물을 훌쩍 뛰어 넘어 밝은 미래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새해 포부를 전했다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안전제일 ▲즐거움 ▲소통 ▲성과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안전은 가스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고, 업무와 작업 프

로세스를 철저히 ‘작업자 안전’의 관점에서 점검해 불의의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출근이 기다려지고 퇴근이 설렙한 ‘즐거움’ 일터, 끊임없는 ‘상호소통’으로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 임무를 완수하는 일터, 직원 개개인

이 책임감과 열정으로 무장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터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인사 운영, 주요 사업 점검, 조직 개편을 위한 3개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인사와 의사 결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고,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노사 관계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가스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시무식 대신 ‘신년 축하 문화공연’, ‘새출발 기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신명나는 타악기 공연을 감상하고 소원과 덕담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활기찬 새해와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단축노선 개통

1·2터미널 이동거리 3km 단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30일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간 단축노선을 전면개통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도로는 총 길이 3.87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이를 통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이동거리가 약 3km 단축된다. 특히, 입체교차로 신설을 통해 단 한 번의 신호 없이 무정차로 여객터미널 간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이동 소요시간도 최대 5분 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이번 노선의 전면개통을 통해 여객터미널 간 이동이 많은 인천공항 노선버스사업자들에게 유리비 절감 등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말 오픈 예정인 인스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간 단축노선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어 복합리조트 및 용유·무의 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적지에 따른 교통량 분리·안내를 통해 주변 교통 혼잡도를 해소함으로써 여객,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주행거리 과장’ 테슬라, 과징금 28억

공정위, 소비자 기만 혐의 제재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잡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당초 조사에 착수하

며 제기됐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정보공개평가 5년연속 ‘최우수’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등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남부발전은 공기업 유형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3.5점 향상된 98.5점을 획득

해 발전공기업 5사 중 지난해 5위였던 점수가 올해 1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남부발전은 자체점검단 사전점검과 QnA 센터 운영을 통해 공개 정보의 품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이 많이 청구한 정보를 유형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적극적인 정보공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